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김병식
초당대학교 총장

‘서둘러 갈 일이 무엇인가’

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사람의 욕망이 관여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고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경제나 주가 예측이 그토록 터무니 없는 것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앞일이 궁금하니, 이렇게라도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이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는 속내를 신년사의 행간에 드러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는 또 다른 덤이다. 보름 전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경제를 생각하면 ‘1조도 아깝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나는 ‘아, 올해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청와대도 초조해 하는구나. 대학 운영을 하는데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올해는 물론이고, 예년에도 빠지지 않는 신년사의 단골메뉴는 이미 짚작하시겠지만, 역시 ‘변화에 대한 강조’이다. 보통 신년사에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두 부류가 있다. 소극적으로 순응할 것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이다.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국내외 경제나 정치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은가를 가늠해 보면 그 해의 주제를 짐작할 수 있

다. 올해는 소극적 입장이 많다는 판단이다. 물론 변화를 적극적으로 리드하겠다는 초기 유기적인 삼성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그런데 다른 하나, 올해 신년사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많은 이가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이다. 이 시점에서, 왜 새삼스레 소통인가. 키카오 톡, 페이스 북, 문자 주고받기 등 소통의 도구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한 스마트 1등인 우리 사회에서 말이다.

정진으로 다투기만 하는 정치권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일까. 아니면 여성 대통령을 맞아 따뜻한 카리스마를 기대했는데 역으로 원칙만을 주장한 대한 실망일까. 여기에서 새삼 그 원인 등을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다만, 무엇인가 답답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진정한 소통은 관십사, 가치관, 감성이 서로 닮음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때 대개의 경우, 말머리(話頭)인 생각에 자기 욕망이 개재될 때 소통은 달아난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고,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은 빨라지고, 공유의 절차인 소통의 과정은 생략된다.

이래저래 정월의 상념이 무겁다. 그래도 올해는 재미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가 많

아 달행이다. 소치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브라질월드컵 등을 생각하면 즐겁다.

종합하면 올해도 역시 세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다. 그래서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드넓은 전망이다. 빅데이터 시대라는 전문용어를 빙자 않더라도 편리한 도구로, 일로부터 자주로 워진 여인네와 노약자까지 경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변화는 가속될 것 같다.

과거 수 천년동안 성장되었던 정보의 양이 지금은 단 10분 만에 생산된다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니, 변화 속도가 주변의 속도보다 높으면 최후를 염두에 두라고 시장은 위험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인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현실이 꼭 그렇다.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연유로, 즉 몸이 불편하다는 해서, 몸을 천천히 움직일 때 우리는 의외로 편안함을 느낀다. 느립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제 속도다. 움직임이 본질인 자연계는 나름대로 모두 자기만의 속도영역 즉, 유효속도가 있다. 물질 속의 전자(electron)는 전자대로, 초원을 달리는 타조는 타조대로 말이다.

일전에 눈 밝은 친구가 놓고 간 관광, 그 모퉁이의 글귀가 생각난다.

“서둘러 갈 일이 무엇인가”

社說

‘창당’ 안철수 신당, 호남민심 바로 새겨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를 전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3월 말까지 창당을 마치고, 6·4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다 내겠다고 밝혔다. 이제 지방선거는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의 3파전으로 판이 커지게 됐다.

특히 신당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던 호남에선 양측간에 대접전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들어 안 신당의 지지율이 박빙 내지 열세로 돌아 주춤거리고 있지만 창당이 구체화됨에 따라 과격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이다.

인철수 신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 이유는 무엇보다 안 의원이 호남의 정치적 허망에 가장 극복해 있다는 데 있다. 이는 민주당이 이렇다할 허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의원이 호남에만 의존도를 넓히고, 애원 연대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양당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호남에서야 어떻게 싸우든 문제될 게 없지만 적어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충남·북, 강원 도지사 선거에 신당이 그럴듯한 인물로 맞불을 놓아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다면 공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애원연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신당이 애원의 퇴출 정치인 내지 일부 현역의원들을 빼 내기는 식이라면 그가 주창하는 새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참신한 신진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 등지로 외연을 확대해 지지기반을 높여야 한다. 그게 호남사람들의 바람이자 지지에 대한 응답이다.

안 신당은 이번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선거 결과를 지켜본 후 ‘열린 자세’로 애원 재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정치사에서 숱하게 사라졌던 제3당의 운명을 겪혀 히 새겨야 할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제대로 하라

다음달부터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주행하다 DMB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만시지탄이지만 교통사고의 새로운 원흉인 DMB 시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다.

하지만 문제는 움직이는 차 안에서의 DMB 시청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 차의 단속이 헛되이 않을까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단속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적발이 쉽지 않고 계도에만 그친다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근절시킬 수 없다.

단속 범위와 적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사진 채증 등 단속 중 시비를 해소할 효과적인 단속 기법을 개발하고, 집중단속도 펴나가야 한다. DMB 시청을 강도 높게 제어해 사고 방지 효과를 높인 영국이나 호주의 성공사례들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방주시율이 50.3%로 떨어지고, 이는 암코을 농도 0.1%의 만취 상태에서의 주시율(72%)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다.

주행 중 DMB를 조작하면 위험은 더 커진다. 단말기 조작에는 평균 6초가 걸리므로 시속 70km로 주행하더라도 운전자 가 앞을 보지 않고 118m를 달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운전 중 DMB 시청은 운전자를 ‘도로의 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은 단속규정이 만들어진 만큼 엄중하게 집행해야 한다. 적발이 쉽지 않고 계도에만 그친다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근절시킬 수 없다.

단속 범위와 적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사진 채증 등 단속 중 시비를 해소할 효과적인 단속 기법을 개발하고, 집중단속도 펴나가야 한다. DMB 시청을 강도 높게 제어해 사고 방지 효과를 높인 영국이나 호주의 성공사례들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無等鼓

우리말에서 복수(複數)를 뜻하는 ‘들’이란 친구는 아주 불임성이 좋다. 영어에서 복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es’(s)란 놈은 심히 낯을 가리는 까닭에 오로지 명사에만 붙는다. 하지만 진화력이 좋은 ‘들’은 거의 모든 품사에 거리낌 없이 달라붙는다.

예를 들면 ‘모두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라’는 문장은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앞의 ‘들’은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지만 뒤의 ‘들’은 지칭하는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없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우리말에서의 복수(複數)를 뜻하는 ‘들’이란 친구는 아주 불임성이 좋다. 영어에서 복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es’(s)란 놈은 심히 낯을 가리는 까닭에 오로지 명사에만 붙는다. 하지만 진화력이 좋은 ‘들’은 거의 모든 품사에 거리낌 없이 달라붙는다.

예를 들면 ‘모두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라’는 문장은 ‘모두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앞의 ‘들’은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지만 뒤의 ‘들’은 지칭하는 대상이 복수임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

이가 이렇게 끌 수가 있다.

타향에 사는 자식들에게 부모님께서 ‘다들 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들’은 단지 복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기에서는 자나깨나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걱정 어린 마음을 염불 수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로 시작됐다면 어쨌을까. 그저 그렇고 그런 대자보의 하나로 묻혀 버렸을지 모른다. 우리는 여기

에서 ‘들’이라는 친구의 엄청난 위력을 보게 된다. ‘들’은 차 하나가 불고 안 불고의 차